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ww.kicce.re.kr	보 도 자 료		
	작 성	담당부서	연구기획평가팀(☎ 02-398-7768)
		담당자	김지현 연구기획평가팀장(☎ 02-398-7768)
	배 포	담당부서	출판홍보팀(☎ 02-398-7740)
		일 시	2026년 7월 13일(월)
보 도 일 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제4차 「KICCE 영유아 미래포럼」 및 2026년 제1차 「육아정책 네트워크 포럼」 성료

< 주 요 내 용 >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2026년 7월 8일(수),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AI 시대와 미래의 영유아 교육 정책을 말하다’의 주제로 제4차 「KICCE 영유아 미래포럼」 및 2026년 제1차 「육아정책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였다.
 - 육아정책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의 국내 학계 전문가 강연을 바탕으로 한 KICCE 영유아 미래포럼을 통해 영유아 미래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였으며, 육아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학회 및 유관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융합적 관점에서 영유아 정책의 확장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피는 기회를 가져왔다. 그 일환으로 국가 정책의 중심 의제인 AI 기반 교육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사회에서 학계 및 유관기관간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하였다.
- 이번 제4차 「KICCE 영유아 미래포럼」은 ‘AI시대 문명의 변화와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태재대학교 염재호 총장의 기조강연과 유관기관 및 학계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염재호 총장은 문명의 변화 속에서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갈 세대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AI시대에 아이들이 인간다움의 본질을 잊지 않고, 꾸준한 호기심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속에서 축적되는 유연한 지식과 융합적인 능력으로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을 강조하였다.
 - 이에 학계를 대표한 한국보육지원학회 강정원 부회장, 한국유아교육학회

권정운 부회장, 한국아동학회 이강이 회장의 토론에서는, AI 시대에 희소해지는 관계 및 돌봄 역량, 인간다움에 대한 중요성, 직접경험을 통한 발달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유관기관을 대표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오연주 이사장,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조용남 원장,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의 토론에서는 AI 시대 유아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AI 안전교육, 영유아 교사의 역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 AI 시대 교육에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환경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영유아 교육에서 지켜져야 할 것들을 강조하였다.

- 이어 진행된 2026년 제1차 「육아정책네트워크 포럼」에서는 앞서 토론에 참여한 학회와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12개의 유관학회, 3개의 공공기관, 5개의 유관단체가 모여 총 20개의 네트워크 기관이 참석하여, 공통된 주제인 AI시대의 미래 영유아 보육교육의 정책방향성과 육아정책연구소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논의가 이어졌다.

※ (학회) 한국가족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인지과학회, 한국청소년학회

(공공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유관단체)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Save the Children, unicef

- AI 시대에 미래 영유아 보육교육의 정책방향성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AI시대에도 디지털 세상의 아이들의 마음건강의 중요성과 경험, 공감, 정서 발달, 신뢰로운 관계, 사회적 역량 등 인간중심 가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AI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떤 아이를 길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중심에서 영유아기 발달의 본질적 가치를 수호하면서도, AI 활용 등으로 인한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정서적 영향 및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증거기반 연구수행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국가적인 관심사인 AI 발전에 있어서 영유아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인간중심의 가치의 실현을 위한 발달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실무적, 정책적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제4차 「KICCE 영유아 미래포럼」 및 2026년 제1차 「육아정책 네트워크 포럼」 자료집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자료집 내려받기: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붙임 제4차 「KICCE 영유아 미래포럼」 및 2026년 제1차 「육아정책 네트워크 포럼」 사진 6매. 끝.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 김지현 연구위원(☎ 02-398-77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